

# 사별가족 돌봄의 실제

- 강남성모병원 -

차진숙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센터 사회사업가

인간은 일생을 통해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하지만 가장 크고 중심적인 상실은 죽음이다.

한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 중 어떤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매우 큰 충격이며 변화를 초래한다.

상실을 경험한 가족들이 사별 후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돕고, 상실과 슬픔을 정상적으로 극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천 방법으로써 사별가족 관리가 필요하다.

## 임종 시 돌봄

- 임종시 가족과 함께 있어주며, 슬픔에 동참
- 가족들이 작별 인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배려
- 임종 전후기도, 연도, 영안실 방문, 장례예절 참여 및 장지 수행



## 입원 중 돌봄

- 신체 간호
- 환자 및 가족 상담
- 가족 지지 및 교육
- 병동 미사
- 퇴원 후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사목자, 자원봉사자 등의 팀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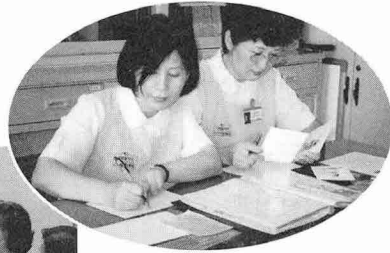


## 임종 후 돌봄

- ◆ 사별가족 지지 팀 운영
  - 구성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사목자, 자원봉사자
  - 팀모임: 월 1회(셋째 목요일)

◆ 사별가족 지지 팀 활동

- 전화 상담
- 위로 편지 발송 (50일, 100일, 1주기)
- 성탄, 부활 카드 발송
- 사별가족의 경조사(결혼식, 영세식, 돌잔치 등) 참석
- 월 1회 병동미사 후 사별가족 모임 및 상담
- 년 2회 전체 사별가족 모임



▲ 사별가족 위로편지 발송



▲ 사별가족 지지 팀 모임

사별가족모임



## 사별가족 돌봄 사례

## 사 례 I

## ◆ 자녀 사별한 모

- 환자 : 대장암 진단 받은 43세 여환자. 가톨릭. 이혼.  
자신의 인생에 대한 후회, 夫와 母에 대한 양가감정, 원망, 절망, 불안 등
- 母 : 당시 63세(現74세). 주 간병. 활달해보이나 신경질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한 편. 자기중심적으로 환자를 돌보려는 경향 보임. 환자의 결혼생활의 어려움에 관심과 도움 주지 못함.

- 개별 상담, 보호자 역할 수행, 식사제공 등
- 카드 발송, 전화 상담, 병동미사 초대, 사별가족 모임 초대 등

## 사 례 II

## ◆ 부인 사별한 남편

- 환자 : 췌장암 진단 받은 56세 여환자. 가톨릭. 활동적. 강한 인상.
  - 夫 : 주 간병. 미안함, 후회, 아쉬움.  
가톨릭 병답中. 무직. 고인묘지에 매일 방문.
- 개별 상담, 보호자 역할 수행, 식사제공 등
  - 카드 발송, 전화 상담, 병동미사 초대, 사별가족 모임 초대 등

## 사 례 III

## ◆ 남편 사별한 부인

- 환자 : 담도암 진단 받은 56세 남환자. 가톨릭. 충격, 절망, 원망, 양가감정 등.
- 妻 : 주 간병. 가톨릭. 충격, 원망. 적극적이고 활달하며 이성적임.  
환자와 지지적이고 밀접한 관계 유지함. 자녀들에게 의존함.

- 개별상담, 식사제공, 영적지지 등
- 카드 발송, 전화 상담, 병동미사 초대, 사별가족 모임 초대 등
- 사별가족 대표로 활동
- 경조사(아들 결혼식) 참석

사별가족 돌봄 활동은 환자가 사망하기 전부터 임종 후까지 폭넓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상실, 비탄 등의 여러가지 고통에 직면한 사별가족에게 대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종을 앞둔 환자 자신은 물론 가정,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사별가족 관리는 단순히 수동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취해야 할 과제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